

한국천문연구원 우주과학연구부장

## 박영득 박사

지난 3월 29일 피라미드와 스피нк스의 나라 이집트에서는 우주의 가장 장엄한 쇼인 개기일식이 있었다. 개기일식은 그 자체가 훌륭한 볼거리지만 천문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현상이다. 이에 한국천문연구원은 개기일식 원정 관측팀을 파견했다. 관측은 대성공을 거두었고, 성공적인 관측을 이끈 이는 팀장 박영득 박사였다.

**KASI** : 지난 3월 이집트 개기일식 관측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, 어떠셨나요?

**박영득** : 이번이 제가 경험한 여섯 번째 개기일식입니다. 일주일 전에 도착을 했는데 계속 날씨가 안 좋아서 거의 포기상태였습니다. 다행히 개기일식 당일 날씨가 무척 좋았어요. 사람들이 알라의 축복이라고 하더군요.

**KASI** : 날씨가 흐려 관측을 못하신 적도 있나요?

**박영득** : 날씨 때문이나 기기 고장으로 관측을 못하면 정말 죽고 싶은 기분이 들죠. 1991년 첫 개기일식 때가 그랬습니다. 멕시코였는데, 통관 문제로 장비를 늦게 찾은 데다가, 카메라마저 고장나서 한 장도 못 찍었습니다.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태평양을 보니 뛰어두고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.

**KASI** : 개기일식을 여러 번 보셨을 텐데 그 느낌은 어떤 건가요?

**박영득** :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말로 설명한다고 그 맛을 알 수는 없겠지요. 개기일식도 마찬가지입니다. 기기의 특성과 한계 때문에 개기일식의 세세한 모습을 모두 담아내질 못합니다. 그러나 인간의 축복 받은 눈은 그 모든 것을 잡아냅니다. 검은 태양 위로 솟아오르는 홍염과 물결치듯 일렁이는 코로나의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. 그건 정말 환상적입니다.





지난 이집트 개기일식 사진을 보여주며 그 당시의 감동을 들려주는 박영득 박사.

**KASI** : 사진 촬영하고 장비 만지다 보면 제대로 감상할 시간이 있나요?

**박영득** : 개기일식을 제대로 본 건 장비 고장으로 실패했던 첫 개기일식 때가 유일합니다. 정말 다행히 놓고 봤습니다. 수분 간 진행되었지만 끝나고 나니 한 10초쯤 지난 느낌이 들더군요. 그래서 함께 간 원정팀원에게는 늘 경고를 합니다. 절대 하늘을 보지 말라고요. 보는 순간 그 황홀함에 빠져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.

**KASI** : 최근 우주환경예보 분야가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?

**박영득** : 예전에는 사람의 활동 범위가 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 습니다. 그러나 오늘날에는 지구를 벗어나 우주 공간으로까지 확대 되었죠. 그런데 우주 공간의 환경은 변화무쌍합니다. 그 원인은 바로 태양에 있죠. 태양이 기침 한번 하면 얼마 안 있어 지구에 그 영향이 나타납니다. 막대한 비용을 들여 발사한 인공위성이 태양풍을 맞아 고철이 되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. 자기폭풍으로 무선 통신이 두절 되고, 전력 공급이 끊어지는 사태가 발생한 예도 있습니다. 우주환경을 모른다는 것은 대기권 안에 살면서 일기예보를 모르고 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.

**KASI** : 우주환경예보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?

**박영득** : 지금은 한 30%정도입니다. 생각하신 것보다 낮은 수준일 겁니다. 다음 태양 활동 극대기가 2011년인데, 그때를 즈음해서 우주환경을 관측하기 위한 위성이 다수 발사될 예정입니다. 그러면 예

보의 정확도도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**KASI** : 어렸을 적 별에 관심이 있으셨나요?

**박영득** : 태어나고 자란 곳이 시골입니다. 항상 별을 볼 수 있었죠. 그때는 관심이라기보다는 별을 보는 것이 그냥 일상이었습니다. 처음부터 천문학을 공부한 것은 아닙니다. 집안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못해서 우선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사대를 졸업하고 교사가 되었습니다. 그런데 교사 생활을 몇 년 하다가 이천 아니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. 진정 원했던 일을 하지 못한 것을

후회하고 있는 미래의 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, 그때부터 지금까지 태양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.

**KASI** : 그런 결정이 쉽지 않으셨을텐데요.

**박영득** : 그랬죠. 지금 생각해보면 젊은 날의 무모한 용기였던 것 같아요. 어머님도 겉으로 반대하시진 않으셨지만 속으로는 자식 걱정에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겁니다.

**KASI** : 홈페이지를 둘러보니 글쓰는 것에 남다른 재주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?

**박영득** : 도서관에 계셨던 자형 덕분에 도서관 책 거의 전부를 읽다 시피 했습니다. 독서가 글쓰는 데도 그렇고, 살아가면서 큰 재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, 젊은 세대들은 책과 가까워지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더군요. 컴퓨터다, 공부다 그런 환경 요인도 크겠지만, 무엇보다 부모님들이 솔선 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

**KASI** : 끝으로 우리나라 태양 천문학의 미래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.

**박영득** : 현재는 일본이나 중국보다 낮은 수준입니다. 최근 미국 빅베어태양천문대(Big Bear Solar Observatory)에 세계 최대의 태양 망원경을 건설 중이고, 저희도 참여하고 있습니다. 그게 완성되면 양적인 면에서는 좀 부족해도 질적인 면에서는 중국과 거의 비등한 수준에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우주환경예보 분야도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수행할 예정입니다.